

# OPINION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자주 대표



영팔이 아저는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 읽은 글에서 얻은 슬기를 베풀어준다. 논리의 바탕이 튼튼하고, 말의 순서에 짜임새가 있다. 옛글을 읽지만 요즘 상식의 흐름도 잘 잡는다. 읽는 것으로 치자면 노벨상 저리 가라다.

자칫 겁대기만 안고 잘난 체 할 수도 있으나 책에서 얻은 겸손을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슬그머니 톡 치거나, '어려운 일을 그렇게 풀었더니!' 살짝 꼬투리를 던지기도 한다.

기하 아우는 기타를 잘 친다. 누구나 악기 하나쯤 다루면 좋다는 기타를 가르쳐준다. 손가락이 짧으니 코드를 이렇게 잡고, 손의 움직임은 이렇게 하라며 꼼꼼하게 알려준다. 연주법은 가르쳐줄 수 있으나 감각은 가르쳐줄 수 없으니, 스스로 익히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옛날에 수레바퀴 쥘는 늙은이가 있었다. 너무 쥘으면 헐거워서 바퀴가 쉽게 빠지고, 덜 쥘으면 조여져 들어가 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손으로 익힐 뿐이다. 기타 치는 것처럼.

성인의 깨달음을 글로 옮긴 책도 마찬가지다. 글로는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깨달음까지 심어줄 수는 없다.

## 옛 맥이는 사회

아무리 읽어도, 머리로는 익히고 몸에 스며들지 않으면? 글 읽는 기술자일 뿐이다.

'네스토링'이란 말이 있다. 존 울리버 네스토 박사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선을 규정 속도대로 달린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속도 제한이라는 법을 지키게 하려는 뜻이지만 도리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법 조문을 정확하게 따르므로써 오히려 세상을 망쳐 버리는 일을 '네스토링'이라 부른다.

법을 만든 취지는 온대간데없고, 글자만 그대로 해석함으로, 상식을 뒤엎고 원칙을 무너뜨릴 때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법 기술자'라 부른다.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제 이익만 챙긴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오는 행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시대에 발 맞추기 힘들고, 행정처리자들이 물려받은 관행의 낡은 일처리 방식으로는 변화의 때를 놓친다. 때를 놓친 일도 꽤 있다.

행정처리자의 개인 취향으로 K-콘텐츠를 만들 수 없으니, 허가받은 권력이라고 제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 작은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게 탈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기업가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상품 값어치는 점점 높아갔다. 목표는 두루뭉술한 논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숫자로 세웠다. 행정도 정치도 그러지 않을까?

정치는 권력을 얻으려는 몸부림이고 마음부림이다.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이나 회사처럼 작은 곳에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애쓴다.

정치는 우리 마음 속에 묻어있고, 우리 모두는 정치를 하며 산다. 의원이 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을 노리는 사람만 꼭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한아비(조상)가 저질렀던 친일의 상식을 감싸다보니, 독립운동을 무시한다.

제 집안이 휘둘렀던 독재의 상식을 따르다보니, 민주운동을 때려잡으려 한다.

그러면서도 독립의 평안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맘껏 누리고, 민주주의 세상을 자신들이 일군 것처럼 제멋대로 누린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내 이익을 먼저 따지면서 제 이익으로 대중을 끌어들이고, 정치'가'는 공동체의 이익을 따지며 바뀌간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많은가, 정치가가 많은가?

지도가 바뀌었는데 옛 지도로 향해했다가는 침몰의 길로 들어서고, 멈추지 않은 탐욕을 앞세우다가는 모두를 파탄의 길로 이끈다. 탐욕을 치밀하게 포장해서 감추니까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나메기란 말이 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해서,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산다는 말이다.

백기안 선생은 우리 함께 한류(인생)를 노나메기처럼 살아가며 이 말을 자주 썼다. 노나메기는 어질고 올바르게 잘사는 세상이다. 천국의 우리말쯤이다. 노나메기를 그리 는 정치가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넘쳐나면 좋겠다.

## 기고

정은성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여가 친화도시 광주를 위해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 기존 공공시설이 퇴근 후와 주말에도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15분 여가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광주만의 특색 있는 여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광주비엔날레로 상징되는 예술적 자산을 여가 활동과 연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따라 걷는 민주·인권 트레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생활예술 프로그램, 무등산과 영산강을 활용한 생태 여가 프로그램 등 광주의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가 필요하다.

또한 광주 곳곳에 숨겨진 역사·문화적 장소를 발굴하고 이를 연결하는 도시 산책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일상 속 여가 활동을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외부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여가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여가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여가 프로그램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장년층을 위한 시간 효율적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여가 서비스를 개발해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다양한 계층의 여가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가 활동이 새로운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넷째,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 기반의 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가친화도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 대학,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 여가위원회'와 같은 참여 기구를 통해 여가 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 자치 차원의 생활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업들의 직원 여가 활동 지원과 여가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여가는 낭비가 아닌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여가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여가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 이벤트성 정책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주를 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광주가 진정한 여가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의 문화적 자산과 시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여가친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는 단순한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취재수첩

### 현실화 되는 관세폭탄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81조원)으로,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찌감치 우리나라를 자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부품품도 25% 관세에 더해 이번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수출 감소와 생산 차질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고용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은 관세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광주지역의 미국 수출액은 51억달러로 이 중 75%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한다. 25%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추가되면 국내 자동차 수출은 더욱 줄어들고 현지 생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푸드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순천공장, 광양알루미늄㈜, ㈜삼미메탈, 아시아T&C, ㈜세아제강 순천공장 등 전남의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도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전남 수출기업들 대부분은 트럼프 관세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광주FTA통상진흥센터가 최근 지역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관련 지역 수출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가 관세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은 물론 지역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산업 위기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사설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제 역할 수행 기대

광주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이 정식 개통했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광주시가 지난 1일 첫 선을 보인 이 플랫폼은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 상담·공간 예약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광주시·자치구 및 전국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는 물론, 우수기업 및 일자리 정보, 청년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을 안내한다.

특히 사용자 정보, 플랫폼 내 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준으로 특징을 분석해 추천 사업, 연공 콘서트, 주변 청년 공간의 정보까지 알려주는 AI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창업, 교육,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청년정책 관련된 문의를 전화·방문·게시판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종합상담 공간도 운영한다고 한다.

또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공개 채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일자리 찾기, 강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 등도 검색할 수 있다.

사실 광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을 총망라해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취업과 교육·문화 인프라 등 수도권과의 격차 때문에 매년 5000명 이상의 20~39세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하는 등 청년 유출현상이 심각해져 따른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떠난 청년들은 2020년 5996명, 2021년 5268명, 2022년 5346명, 2023년 5072명, 2024년 5800명 등 총 2만7480여명이다. 여기에는 수도권이 지방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이 높고 평균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자리 정보 미흡, 청년 콘서트 부족 등도 요인이라고 한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이 이같은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 화순군 생활인구늘리기 '눈에 띄네'

화순군의 '생활인구 늘리기'가 눈에 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층 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를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즉, 정주민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립가정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지역 내 인구특성은 물론 체류 유형별 특징과 소비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자체가 맞춤형 시책을 펼 수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화순군은 먼저 청년·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 임대료에 20평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만원주택지원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0가구에 이어 지난해 101가구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 1만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타지역 출신이 입주자의 절반(51%)는 넘는 등 젊은 층에게 인기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는 길이 60m, 폭 10m의 음악 수조, 최대 높이 50m의 캐논 슈터, LED 수중조명 등을 갖춘 초대형 분수대 '화순꽃강길음악분수대'를 설치했다. 이 분수대는 화순의 아경을 화려하게 밝히는 명소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다.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 3층 높이의 개미산 전망대와 코스모스 산책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산책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순파크골프장(87홀)은 지난해 개장한 이래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문인지 화순군은 최근 행안부 등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에서 생활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6배인 36만46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 6만916명과 외국인 1110명, 체류인구 30만 2586명을 합친 것이다. 화순군의 다양한 시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편집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